

# 광주·전남 임시선별검사소 지역감염 차단 역할 ‘톡톡’

코로나 검사 누적 15만여건...시민 10명 중 1명 이용  
고속도로 등 13곳 운영 3만3천여명 검사 중 5건 찾아

광주와 전남에서 운영중인 임시선별검사소가 이번 추석 명절 기간 코로나19 방역망 역할을 톡톡히 해낸 것으로 드러났다.

‘연휴=코로나19 증식기’라는 우려 속에 광주시와 전남도는 시청과 고속도로 등지에서 임시선별검사소를 확대 운영했는데, 감염 연결 고리를 사전에 차단해 확산세를 잡을 수 있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3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이번 추석 명절 연휴 5일(18~22일) 동안 광주 시청 야외 음악당에 설치된 임시 선별 검사소에 7천524명의 시민과 고향을 찾은 방문객이 검사를 받았다.

이는 하루 평균 1천505명의 시민이 시청 임시선별검사소를 찾은 셈이다. 시청 임시선별검사소는 지난해 12월27일 문을 연 이후 9개월 간 전체 시민의 10.6%인 15만3천여명이 검사를 받았다.

광주시 전체 코로나19 검사자 수가 18만3천2명인 점을 감안하면 임시선별검

사소에서만 8.3%(15만3천명)가 검사를 받은 것이다.

임시선별검사소 검사자 중 코로나19 확진자는 모두 365명(0.24%)인데, 이 중에는 감염 경로가 불분명한 경우도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임시선별검사소가 없었다면 지역사회 감염도 광범위하게 더 퍼졌을 수도 있었다는 얘기다. 시청 임시선별검사소는 연중 무휴로 매일 밤 10시까지 운영 중이다.

검사 결과는 다음날 오전이면 알 수 있다. 특히 야간 검사가 가능한 점 등 접근성이 용이해 직장인 등으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운영 초기 하루 평균 검사자 수는 300명 수준에 불과했으나 현재는 2천500명으로 8배 이상 늘었다. 앞서 지난 5월 시는 임시선별검사소에 그늘막을 설치하고 2m 거리두기 스티커를 부착한 뒤 우천 대비 시설을 설치하는 등 검사자 편의를 위한 시설 보강을 진행했다.



계속되는 진단검사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추석 연휴가 끝난 23일 오전 광주 서구보건소 선별진료소를 찾은 시민들이 진단검사를 받기 위해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김예리기자

전남에서는 추석 연휴 도내 고속도로 휴게소 4곳(함평천지·백양사·섬진강·보성녹차)과 KTX 역 포함 9곳 등 모두 13곳의 임시선별검사소가 운영됐다.

전국 고속도로휴게소 임시선별검사소 8곳 중 전남에서 4곳을 운영 중이며, 보건소 외 임시선별검사소도 비수도권 61

곳 중 전남이 13곳을 운영하고 있다.

도내 임시선별검사소 13곳에서는 연휴 동안 모두 3만3천345건의 검사가 이뤄졌고 이 중 5건의 감염자를 찾아냈다.

고속도로 휴게소에서는 1만910건을 검사해, 함평천지 휴게소에서 2건을 밝혀냈다. 이들은 전남 확진자가 아닌 거주

지 경기·전북 확진자로 분류됐다.

이밖에 다른 검사소에서는 2만2천435건을 검사해 영광톨게이트에서 1건, 순천역에서 2건을 발견했다.

전남도는 이달 말까지 고속도로 휴게소 외 임시선별검사소를 운영해 지역사회 감염을 차단할 계획이다.

이용섭 시장은 “코로나19 확산을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초기에 감염자를 찾아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라며 “코로나 증상이 있거나 타지역을 방문했을 경우 선별검사소를 찾아 꼭 검사를 받길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했다.

/오승지·임후성기자

## 담양 금성산성·강진 백운동 별서정원 가을 비대면 안심관광지 25선에 선정

전남도는 23일 “한국관광공사의 가을 정취를 안전하고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가을시즌 비대면 안심관광지 25선’에 전남에서 담양 금성산성과 강진 백운동 별서정원 등 2개소가 선정됐다”고 밝혔다.

‘가을시즌 비대면 안심관광지 25선’은 가을빛 고운 숲과 산, 바다 중 널리 알려지지 않아 안전하고 호젓하게 가을의 맛을 만끽할 수 있는 곳을 중심으로 선정됐다.

담양 금성산성은 호남의 3대 산성 가운데 하나다. 험준한 지형 위에 7km 성벽을 둘러싸고 산의 지형과 지세를 이용해 외부에서는 성 내부를 볼 수 없게 축조된 선조의 지혜가 담긴 곳이다.

강진 백운동 별서정원은 담양 소재원이나 완도 보길도 부용동정원과 함께 호남 3대 정원으로 불린다. 조선 중기 처사 이담포가 들어와 계곡 옆 바위에 ‘백운동’이라 새기고 조영(造塋)한 정원이다. 자연과 인공이 적절히 배합, 짜임새 있는 구성을 이루며, 우리 전통 원림의 원형이 그대로 보존된 별서정원이다.

유미자 전남도 관광과장은 “전남에는 담양 금성산성과 강진 백운동 별서정원



담양 금성산성.



강진 백운동 별서정원.

외에도 관광명소 못지않게 풍광이 아름다운 곳이 많다”며 “대표적으로 ‘전남도 안심여행 관광지 50선’이 있고 많은 관광객이 이곳에서 여유롭게 가을의 맛을 만끽하고 힐링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가을시즌 비대면 안심관광지 25선’ 정보는 ‘대한민국 구석구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재정기자

## “수확기 외국인근로자 진단검사 받으세요”

전남도, 2주 1회 검사 의무화...농촌현장 확산 차단 총력

전남도는 23일 “가을철 수확기 농촌현장의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농업 분야 외국인 고용사업장 종사자의 무료 진단검사를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전남도는 이달 4일부터 전남 전역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연장함에 따라 6일부터 외국인 고용사업장에서 일하는 내·외국인 전원에 대해 2주 1회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도록 행정명령을 내렸다. 전남지역 총 834개소 5천32명이 대상이다.

이런 가운데 추석 연휴 대이동에 이은 가을철 수확기를 맞아 전남으로 상당수 외국인이 유입될 전망이다.

가을철 대규모 인력이 필요한 농작업은 양파·마늘·겨울배추 정식, 가을배추

·배·고구마 수확 등 6개 품목이다. 이 중 마늘·양파 정식과 배 수확 등은 비교적 높은 작업 숙련도가 요구되는 작업으로 9월 들어 다수의 외국인 노동자가 작업 중이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22개 시·군과 합동으로 농업 분야 외국인 고용사업장에 대한 진단검사와 방역상황 현장 점검을 하고 있다. 현장 확인 시 13개국 언어로 번역한 백신 접종 안내문도 직접 배부해

언어 소통 장애로 인한 문제를 차단하고 있다.

특히 여러 명이 단체로 활동하고 있어 일부는 불법체류자일 가능성도 있지만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을 고려해 철저한 신분 보장을 원칙으로 백신 접종까지 유도하고 있다.

소영호 전남도 농축산식품과장은 “추석 연휴 기간과 수확기가 겹쳐 농촌지역 방역 상황에 주의가 필요하다”며 “외국인 노동자 뿐만 아니라, 함께 생활하는 내국인도 반드시 2주에 1번 씩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재정기자

광주보건환경연구원, 한국동물위생학회 우수기관상

광주보건환경연구원은 최근 충북 증평 블랙스톤 벨포레에서 개최된 ‘2021년도 한국동물위생학회 학술발표대회’에서 우수 기관상과 구두발표 대상을 수상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우수 기관상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수상한 것으로, 광주보건환경연구원 동물위생시험소가 가축방역 및 축산물위생 연구기관으로서 그동안 우수한 연구실적과 선도적인 역할로 학회의 위상을 드높인 점을 높게 평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종행기자

또 학술발표대회에 참가한 김지연 수의연구사가 ‘광주지역 반려동물 소화기 질병 병원체 감염 실태조사’를 구두 발표해 대상을 받았다.

이번 수상은 한국동물위생학회지에 지난 1년간 연구 성과를 논문으로 작성해 ‘광주지역 도축 돼지 및 가공품 E형 간염 실태 조사’와 ‘광주광역시동물보호소 입양 대상 유기견의 호흡기 질병 실태 조사’를 게재해 학술적 우수성과 활발한 연구활동을 인정받은 것이다. /이종행기자

김대중컨벤션센터 사장에 김상목 코트라 본부장 내정

광주시 산하 기관인 김대중컨벤션센터 제2대 사장 후보자에 김상목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혁신성장본부장이 내정됐다.

23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17일 김 본부장을 사장으로 내정하고 광주시의회에 인사청문회를 요청했다.

김 본부장은 1988년 코트라에 입사한 뒤 글로벌기업협력실장, 서비스수출지원센터장, 경제통상협력본부장 등을 역임했다. 사장 공모에는 코트라 출신 3명, 지역 관련 기관 경력자 2명이 지원

했다. 센터 임원추천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이용섭 광주시장의 김 후보자를 내정했다. 시의회는 다음 달 14일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하고 18일 인사청문 결과 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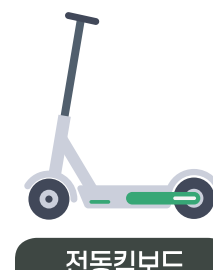
결과 보고서를 토대로 이 시장이 최종 임명한다. 김대중컨벤션센터는 2004년 개관 후 6대까지 코트라 출신이 시장을 맡았다. 사장 임기는 3년으로 임기 중 해임되거나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이종행기자

광주매일신문 배려 교통문화 실천운동 캠페인

## 내가 가지고 있는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자전거도로 달려도 될까?

아래조건을 만족하는 개인형 이동장치만 자전거도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 2020년 2월 16일 이후 제작되어, KC인증을 받고 정식 통관된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 2020년 2월 16일 이전 제작되어, KC인증을 받고 정식 통관된 제품 중 일부 모델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 주치 |

광주매일신문

| 후원 |

광주광역시 남구

GTCL

광주광역시교통문화연구소

TS

한국교통안전공단

롯데쇼핑(주)